

버마 전선 학병의 자기서사와 기억의 정치 —박순동, 이가형을 통해 본 학병 서사와 ‘위안부’ 서사의 교차

허윤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목차

- 1 들어가며: 돌아온 사람들
- 2 탈출한 영웅의 모델 스토리와 풍경화된 ‘위안부’
: 박순동, 「모멸의 시대」
- 3 패잔병 문학도의 반성적 글쓰기와 천사가 된 ‘위안부’
: 이가형, 『분노의 강』
- 4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부상과 ‘말할 수 없음’의 소설화
- 5 나가며: 기억과 망각 사이의 ‘위안부’들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7S1A6A3A01079727).

학병의 자기서사에는 군 ‘위안부’의 구술 증언과 유사한 기억의 정치가 발생한다. 어떤 것을 서술하고, 어떤 것은 서술하지 않느냐는 자기서사의 행위성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와의 만남은 학병 서사에서 중요한 화소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을 표현할 언어를 갖지 못한 군 ‘위안부’의 상황상 돌아온 자들의 기억 속 일본군 ‘위안부’의 흔적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그동안 ‘위안부’ 서사로 읽지 않았던 텍스트들을 재독하여 ‘위안부’ 재현을 논하고자 하였다.

박순동의 수기 「모멸의 시대」는 일본군을 탈출하여 OSS 훈련을 받은 항일 영웅의 모델 스토리다. 그는 전선에서 조선인 ‘위안부’를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했지만, 일본군 ‘위안부’를 박꽃으로 대상화하며 멀리서 관찰한다. 말라리아에 걸려 몸이 약해졌다는 이유로 같은 조선인 학병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남겨진 이가형은 수기 「버마전선패잔기」와 소설 『분노의 강』을 통해서 버마 전선의 기억을 서사화한다. 그는 수기와 소설에서 위안소 방문, ‘위안부’와의 만남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이는 그가 ‘위안부’, 포로감시원, 학병 등을 모두 전쟁에 동원된 희생양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가형은 ‘위안부’와 섹스를 하지 않음으로써 헤게모니적 군인되기를 거부한다. 이는 식민지 엘리트였던 그가 상징적 거세를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성장을 거부하는 것과 연결된다. 하지만 그 역시 ‘위안부’와의 만남을 낭만화하는 것은 피하지 못했다. 박순동과 이가형 모두 ‘위안부’의 행위성이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굴절된 재현에서 왜 ‘위안부’가 이야기되지 못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안부’ 서사를 아카이빙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문핵심어: 학병 서사, 일본군 ‘위안부’, 박순동, 이가형, 행위성

1 들어가며: 돌아온 사람들

1937년 중일 전쟁의 발발과 함께 본격화된 총력전 체제는 식민지 조선을 전쟁으

로 몰아넣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전세가 악화되자 일본인 학도병과 조선인 지원병 제도를 시작하여 군인이 될 수 없던 자들까지 소환했다. 조선에서는 1942년 5월 징병제가 실시되었으며, 1943년 10월 20일 전문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조선인들이 학병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규칙」령이 공포된다. 이들은 1944년 1월 20일 입대하였으며, 그 수는 4,385명에 달했다.¹ 조선인 학병은 법문계 대학 및 전문학교에 다니던 식민지의 엘리트였으며,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토대를 닦았다. 전선에서 돌아온 이들은 스스로를 식민지 동원의 대표적인 희생자로 명명하며, 자신들의 항일 의식과 영웅적 투쟁을 회고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친일 전력이 없던 이들은 해방기 새로운 국가를 만들 세대로 지목되었다. 해방기부터 학병 귀환자들의 좌담회나 수기가 잡지와 신문을 통해 공론장에 등장하였으며, ‘1.20 학병회’를 만들어 모임을 계속했다. 장준하, 김준엽, 한운사, 이병주 등이 수기와 자서전, 소설 등 다양한 형태로 전선의 기억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학병 세대의 글쓰기’라 불리기도 한다.

학병 세대를 본격적으로 문제화한 김윤식은 1960년대 이후 학병들의 수기 및 소설을 분석하면서, 식민지 지식인의 체험수기로서 역사적 경험의 글쓰기로 규정하고 국민국가 이데올로기하에 쓰여진 글이라고 정의한다.² 황중연은 이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길항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희생양으로 묘사된 학병들 내면에도 제국의 신민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존재했다는 것이다.³ 이는 말해지지 않은 채 남아 있는 학병의 욕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지원병 제도는 제국과 식민지 간 국민 개념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 지원자들은 천황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사회적 지위 상승이나 취업 전망, 명성 등의 이해관계로 인해 지원하였다.⁴ 하지만 이러한 동기는 학

1 1.20 동지회, 『1.20 학병사기』 1권, 삼진출판사, 1987, 97쪽.

2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3-64쪽.

3 황중연, 「조선 청년 엘리트의 황국신민 아이덴티티」, 『한일 역사인식 논쟁의 메타히스토리: ‘한일, 연대21’의 시도』, 뿌리와이파리, 2008, 258-268쪽.

4 우치다 준, 한승동 역, 『제국의 브로커들』, 길, 2020, 509쪽. 조선에 살던 일본인 정착민은 징병제가 조선인들에게 국민 자격을 주게 될 것을 염려하여 크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본국

병 서사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최지현은 『신천지』 창간호 좌담회 「귀환학생 진상 보고」에서 학병지원자들이 자신들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조선민족을 위해 희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지적한다. 동원을 피해 다녔던 학병거부자들 역시 지원 기피죄로 인해 겪었던 고생을 독립투사의 서사로 그린다. 귀환 학병과 지원 거부자 모두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유 대신 국가의 자리에 민족을 놓고 스스로를 민족의식이 투철한 존재들로 형상화한 것이다.⁵ 이처럼 학병 서사에서는 의도적 망각 혹은 공백이 등장한다. 최영욱은 학병 서사에서 기억의 유동성, 해석 가능성 등 왜곡이나 감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억과 망각의 정치학’이라고 지적한다. 식민지 엘리트 청년인 학병이 가진 ‘제국’의 흔적은 ‘민족’의 부상과 함께 선택적으로 망각되었다는 것이다.⁶ 말함과 말하지 않음의 간극은 학병의 자기서사를 다룰 때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다.

본고는 학병의 자기서사에서 발생하는 기억의 정치를 식민지 엘리트 남성인 학병의 서사 속 일본군 ‘위안부’의 자리를 통해 살피고자 한다. 자서전을 비롯한 수필과 일기, 편지, 대담, 자전적 소설에 이르기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념인 ‘자기서사’(self-narratives)는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에 입각해서 진술하며, 자신의 삶 전반을 회고하고 성찰하면서 자기 삶의 궤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특징을 가진 글쓰기 양식을 뜻한다.”⁷ 기억과 기록을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기억의 선택적 망각과 더불어 허구적 요소가 가미될 가능성이 있으며, 말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진실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기록 보관소 속의 허구”와 “허구 속의 기록 보관소”가 공존하는 자기서사를 읽어내는 작업은 그가 쓰고 말한 것을 문자 그대로만 보지 않으면서도 그 행위성

과 식민지정부는 전쟁 협력, 특히 징집자들의 충성을 보장받기 위해 조선인 대표들을 의회에 진출시키는 등 제한적인 참정권을 줄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

- 5 최지현, 「학병의 기억과 국가」, 『한국문학연구』 제32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459-486쪽.
- 6 최영욱, 「학병 서사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8쪽.
- 7 박혜숙,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문학연구』 제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8-10쪽.

(agency)을 읽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 기억으로 정형화된 서사가 있는 경우, 이와 다른 사건들/이야기들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학병의 자기서사에서 ‘위안부’와의 만남은 중요한 화소가 아니다. 그러니 대상화되고 파편화된 방식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그런 흔적으로밖에 찾을 수 없는 것이 ‘위안부’ 서사의 특징이기도 하다. 일본군 ‘위안부’에게는 귀환 후 사회적인 발언을 할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과 달리 학병들은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한다. 이들의 글에서 조선인 ‘위안부’와의 만남은 삽화 형식으로 기록된다. 같은 민족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지켜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흔적을 통해 군 ‘위안부’의 기억이 서사화되는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군 ‘위안부’의 이야기가 왜 비가시화되었는가를 역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일본군 회고록에서 위안소에 관한 기록을 검토한 후루하시 아야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회고록을 쓸 때 위안소를 왜 기술했는지, 왜 서술할 만한 사건이 되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⁸

벤야민은 수집가가 물건을 자신의 공간에 가져다 놓음으로써 수집품들과 그 과거, 역사를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이때 역사는 수집품의 기원과 출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물건과 수집가 사이의 관계, 수집품을 발견한 장소, 수집품을 얻게 된 과정, 그리고 그때 느낀 감정 등이 이야기화 된다.⁹ 신문이나 잡지의 귀퉁이에서 자신이 관심을 갖는 대상을 스크랩하고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일종의 희열이다. 때로는 폐품처럼 의미 없이 단지 놓여 있는 것을 수집해서 의미를 가진 수집품으로 만드는 것은 수집가의 상상력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할 자리가 주어지지 않은 자를 역사화하는 데는 별것 아닌 수집품을 해석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일본군 ‘위안부’ 서사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돌아온 학병의 서사에서 만나는 돌아오지 못한 여성들의 존재는 단편적이다. ‘위안부’의 삶이나 내면은 제시되지 않고, 대상화되어 전시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리

8 후루하시 아야, 『비관적으로 읽는 일본 군인 회고록 속 ‘위안부’』, 동북아역사재단, 2021, 10-14쪽.

9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의 문예 이론』, 민음사, 1992.

하고 아카이빙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린이 있다.

본고는 버마 전선에 동원된 학병의 자기서사에 나타난 ‘위안부’에 대한 기억을 통해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위안부’ 서사의 장을 확장하고자 한다. 장수희는 일본군 ‘위안부’ 서사를 연구하면서 그동안 ‘위안부’ 서사로 읽지 않았던 텍스트들을 재독하여 ‘위안부’ 재현을 논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¹⁰ 이는 ‘위안부’ 서사가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방식으로 존재할지라도, 그 기록을 통해 기억의 정치 양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 역시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버마 전선에서 돌아온 학병 박순동¹¹의 수기 「모멸의 시대」(『신동아』, 1965.9)와 이가형¹²의 수기 「버마전선패잔기」(『신동아』, 1964.11), 소설 『분노의 강』(경운출판사, 1993)을 겹쳐 읽을 것이다. 이가형과 박순동은 같은 부대에서 종군하였으나 이후 박순동은 탈출하였고, 이가형은 잔류한다. 본고는 이 학병들의 기억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흔적을 길어 올려 일본군 ‘위안부’ 서사를 아카이빙 하고, ‘위안부’ 서사의 확장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위안부’ 서사가 부분적, 단속적으로 다루어진 방식을 규명할 것이다.

10 장수희, 「일본군 ‘위안부’ 서사자료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1 1920년 전남 순천에서 출생한 박순동은 1941년 전남 승주군 선암사에서 불교 수업을 받다 1943년 일본 도쿄의 고마자와 불교대학에 입학한다. 이후 1944년 조선학도지원병으로 강제동원되어 버마에 출정하였다. 1945년 부대를 탈영하여 영국군에 투항,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OSS의 한국 침투작전에 참가하여 이태모, 이종실, 박형무와 함께 훈련을 받았다. 해방 이후 하와이 포로수용소로 이감되었다 1946년 귀국하였으며, 이후 순천 주둔 미군정청 통역관으로 근무하다 순천 제지주식회사를 거쳐 여러 중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를 하였다. 1965년 「모멸의 시대」로 『신동아』 논픽션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전명운전」, 2년 뒤에는 「암태도소장쟁의」 등의 논픽션을 발표하였다. 1969년 사망하였으며 1999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조정래의 외삼촌으로 알려져 있다.

12 1921년 전남 목포에서 출생한 이가형은 구제5고등학교를 거쳐 도쿄제대 불문과를 다니다 학도병으로 동원, 박순동과 마찬가지로 1944년 싱가포르-버마로 출정한다. 해방 이후 싱가포르 수용소를 거쳐 귀국했으며 1946년 목포고등학교 교사, 1953년 전남대학교 교수를 거쳐 국민대학교 교수로 정년퇴임하였다. 1949년 추리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활발하게 번역작업을 이어갔다. 1964년 11월 『신동아』에 「버마전선패잔기」를 발표하였으며, 1979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추리작가협회장을 지냈다. 1978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다. 2001년 사망하였다.

2 탈출한 영웅의 모델 스토리와 풍경화된 ‘위안부’

: 박순동, 「모멸의 시대」

1942년 1월 본격적으로 버마를 침공하기 시작한 일본군은 3년 7개월간 약 23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였으나 이중 70%에 해당하는 16만 7천 명이 전사하였다. 버마는 연합군과 중국군이 일본군을 막기 위해 주로 공습한 지역이기도 했다. 연합군은 1943년 10월 인도 국경을 넘어 진군하였고, 중국군은 사르윈강(버마어로 ‘분노의 강’)을 넘어 동북부에서 넘어왔다. 일본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임팔 공격을 명령하였으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버마 전선의 전황은 어두워졌다. 조선인 지원병은 이 시기 패전하는 일본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파견된다. 1944년 1월 19일 용산 제629부대에서 떠난 조선인 학병 중 14명이 버마 전선에 도착한다. 이가형과 박순동이 배치된 산포 중대는 총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대였다. 야간 보초를 서던 조선인 학병 박순동과 이종실은 영국군의 탱크가 일본군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탈출을 결심한다. 같은 부대에 있던 세 명의 조선인 중 말라리아에 걸려 병약해진 이가형을 남겨두고 둘만 탈영하여 영국군에 투항했다.¹³ 버마 전선의 상황이 좋지 않았고 탈주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가능했다. 인도인 마운테인틴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서 탈출한 박순동은 자신들의 탈출이 마운테인틴이나 다른 조선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 사고처럼 보이려 시도하였지만, 그들이 탈영하였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전선의 상황이 악화되어 탈영병까지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을 뿐이다.¹⁴ 이후 박순동과 이종실은 일본군에게 반감이 강하고 조선 사정에 밝다는 이

13 이가형은 이를 ‘버림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가형, 『분노의 강』, 경운출판사, 1993, 14쪽.

14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 둘만의 탈출 준비에 골몰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혼자 남을 이가형이나 탄 학병들에게 끼칠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마당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우리의 도주가 도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뿐이었다. 즉 우리의 도주는 사고로 보여져야 했다.” 박순동, 「모멸의 시대」, 『신동아』 제13호, 1965.9, 362쪽.

유로 미국의 전략첩보국 OSS에 합류, 특수작전을 위한 훈련을 이수한다.¹⁵ 박순동의 탈출 당시, 이가형은 배신감을 강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소설 『분노의 강』에서 이가형은 박순동과 이종실이 “영웅이 되려고 한 것”이라며, “나는 영웅이 될 기회를 놓친 셈”이라고 회고한다.¹⁶

『신동아』 복간 기념 제1회 신동아 30만 고료 논픽션 작품집 최우수상 수상자인 박순동의 「모멸의 시대」는 ‘학병의 시기’를 ‘민족혼의 대장간’으로 정의한다. 그는 “이민족에 이끌려 자기 청춘이나 생명을 짓밟히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얼마쯤 참고가 되었으면 망외의 기쁨이겠다”¹⁷라며 자신의 전쟁 체험을 민족국가의 차원으로 형상화한다.¹⁸ 그의 수기는 버마 전선에서 탈출 계획을 세우던 1945년 3월 20일에 시작하여 조선으로 돌아오는 때에 끝난다. 버마로 떠나기 전 용산에서의 훈련이나 버마에 도착한 이후의 시간은 삭제된다. 탈출 과정과 탈출 후의 훈련이 버마 전선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는 박순동에게는 버마 전선에서 탈출해서 OSS의 훈련을 받는 과정이 더 중요한 기억이라는 점을 의미한다.¹⁹

15 정병준은 『태백산맥』의 김범우, 〈여명의 눈동자〉의 장하림이 박순동을 모델로 했다고 밝히면서, 버마전선에서 탈출하여 미 첩보기관인 OSS와 공동작전에 참여하고 전쟁포로로 귀국, 해방기 미군정에서 근무하였다는 점 등을 정리한다. OSS 훈련에는 버마 전선 기병대에 있다 탈출한 학병 박형무도 함께 참여했다. 정병준, 「박순동의 항일투쟁과 미 전략첩보국(OSS)의 한반도침투작전」,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6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03, 1-53쪽.

16 “그러나 일본 경찰에 조선 독립운동자로, 또는 사회주의 운동자로 지목되어 옥고까지 치른 내가 이 일본 군대에 지원했다는 오명을 씻을 기회는 내가 일본군을 탈출하여 연합군 편에서 일본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던가. 한데 그들은 그 절호의 기회를 독점한 셈이다. 그들만이 영웅이 되려고 한 것이다. 나는 영웅이 될 기회를 놓친 셈이다.” 이가형, 『분노의 강』, 241쪽.

17 「박순동 씨 프로필」, 『동아일보』, 1965.8.28.

18 이가형 역시 『분노의 강』 책날개에서 이 책이 ‘모멸의 시대’ 3부작의 2부에 해당한다고 기술한다. 일제 시대를 다룬 1부, 한국전쟁을 다룬 3부를 붙여서 ‘모멸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다. 「일제 학도병의 ‘육된 체험’ 48년만에 기록」, 『조선일보』, 1993.7.31.

19 박순동의 수기보다 한 해 먼저 발표된 이가형의 「버마전선패잔기」에도 박순동의 탈출기가 삽입되어 있다. 이가형은 글자 크기를 살짝 줄인 형태로 박순동의 탈출기를 신는다. 패잔기

박순동을 통해 드러나는 영웅되기는 항일 정신을 중심으로 한 학병 서사의 모델 스토리기도 하다.²⁰ 「모멸의 시대」의 중심은 탈출과 훈련과정에서 드러나는 민족의식과 대일 투쟁이다. 보초를 서고 있던 일본군을 죽인 박순동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원수의 일본놈’을 죽였다는 것으로 전환한다. 자신을 괴롭혔던 기다미까도, 데라부찌, 단노 등과 보초를 겹쳐보면서 정당화하는 것이다. 강한 항일 의식은 박순동이 OSS 훈련에 발탁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OSS의 훈련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조선인의 대표로 여기에 와있다는 생각을 강화한다. 조선인으로서 다른 민족, 인종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며 하와이 포로수용소에서조차 조선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직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민족의식은 이내 부끄러움으로 바뀐다. 박순동은 포로귀환선에서 마주친 조선인들의 양상을 관찰하며 안타까움을 느낀다. 포로감시원, ‘위안부’, 지원병, 군속 등 다양한 인물 계급, 계층의 인물들이 함께 탄 포로귀환선은 조선인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이는 이가형이 일본 군인, 포로감시원 등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과 대조된다. 이가형 역시 일본 군대 내에서 병약한 자신이 자꾸 뒤쳐지는 것으로 인해 조선인들이 무시당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지만, 스스로를 민족의 대표자로 자임하지는 않는다.

박순동의 영웅 서사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강화하는 식민지적 남성성을 보여준다. 제국과 식민지의 질서에서 이등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 조선인 남성들은 제국의 남성성을 모방하고 강화함으로써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질서를 유지시킨다. 스피박은 서구 지식인들과 식민 남성 주체의 공모과정을 분석하며, 이 둘이 보편주체로서의 서구 백인 남성을 보편화하려는 욕망으로 연대하고 있으며, 주권적 주체에 대해 지나치게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단 하나의 주체만을 허용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생산한다고 지적한다.²¹ OSS 훈련에서 조선인들

의 일부로 탈출기가 기록된 것이다.

- 20** 모델 스토리는 화자나 그가 속한 준거집단에서 전형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와 국가 전체의 지배적 담론인 거대서사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개인의 이야기는 모델 스토리의 내용과 대항관계 혹은 공진 관계에 있다. 아라라기 신조, 서재길 역, 「전시 성폭력 피해를 듣는다는 것」,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 어문학사, 2020, 355-358쪽.
- 21**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 역, 『다른 세상에서』, 여이연, 2003, 398-416쪽.

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 연습과 훈련을 반복하고, 영웅적 남성성을 완성하는 것은 이러한 지점과 연결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근대적 규범에 따르지 않는 군속 노동자, ‘위안부’ 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박순동이 조선민족다움으로 강조하는 우월성은 위생, 질서 등 제국이 가르쳐준 체계모니를 승인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피식민 국가의 남성 주체는 식민 이후 국민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민족을 대상화한다.

추력 앞을 지나는데 추력 옆에 웅성거리고 있는 병정들 너머에서 상기된 듯한 여자의 경상도 사투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병정들 뒤로 다가가 보았다. 7,8명의 여자들이 추력 아래 맨땅에 보따리를 놓고 그 위에 쭈그리고 앉았고 그 중의 한 여자가 푸념을 하고 있었다. 여자들은 몸뻐에다가 소매가 짧은 하얀 샤쓰를 입고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새어드는 달빛을 받고서 그 하얀 샤쓰들이 한 무더기의 박꽃 같았다.

푸념을 하는 여자는 실성한 사람처럼 사설을 늘어놓고 있었다. 푸념 소리에 의하면 그들은 이곳 구메 본부락에 와 있던 한국인 위안부들이었다. (...)

버마에 와서 처음으로 죠센뻐를 보았을 때의 놀라움과 부끄러움은 그 후 광대한 버마 전선에 걸쳐서 아주 그것도 술하게 그들과 만남에 따라서 사라진지 오래였다. 니흔뻐, 죠센뻐, 주고꾸뻐, 버마뻐- 저마다 위안료가 달랐다. 니흔뻐의 위안료가 최고가임은 물론이다. 탄 뻐는 고사하 고라도, 이 불쌍한 동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운명을 걱정하기에는 우리의 갈 길이 너무나 바빴다.²²

박순동은 버마 전선에서 많은 조선인 ‘위안부’들을 만났다고 하지만, 서술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탈출하는 과정에서 목격한 사람들뿐이다. 그는 ‘위안부’들과 나눈 대화나 위안소를 찾은 경험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수기에서도 위의 장면을 제외하고는 ‘위안부’에 대해 기술하지 않는다. 포주가 도망가고 ‘위안부’들

22 박순동, 앞의 글, 365쪽.

만 남은 상황에서 일본군의 트럭을 타기 위해 분투하는 중인 여성들이다.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사설을 늘어놓”으며 살길을 모색하는 조선인 ‘위안부’들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버마에서 ‘위안부’를 보았을 때 느낀 부끄러움은 그들이 같은 조선인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부끄러움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유발되는 감정이라면 모멸감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나 방식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다. 그래서 부끄러움에는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섞일 수 있지만, 모멸감에는 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분노나 원한을 갖는다.²³ 박순동이 ‘위안부’를 보고 느낀 부끄러움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로 왔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서 자신이 ‘팔려온’ 것과 같은 감정 역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박순동은 ‘이 불쌍한 동포들’이라는 거리를 유지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사히 탈출하는 일이다. 게다가 이 짧은 대목에서 언급되는 것은 위안료다. ‘위안부’ 사이의 위계와 그에 따른 위안료의 차이는 위안소를 운영하는 수단이자 위안소가 군의 동원 시스템이 아니라 시장 질서에 의한 상품처럼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에게 ‘위안부’는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주목할 시간은 없는 ‘대상’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3 패잔병 문학도의 반성적 글쓰기와 천사가 된 ‘위안부’ : 이가형, 『분노의 강』

이가형은 식민지 엘리트 코스를 밟는 유학생이었다. 목포 부민회 위원이었던 자산가의 아들은 구제5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제국대학 불문과에 입학했다. 학병이 되었다. 체구가 작고 약했던 터라 훈련 기간부터 고생했고, 버마 전선에서는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메기도 했다. 이러한 약한 체력으로 인해 박순동들이 부대를 탈출할 때 혼자 남겨졌다 이후 랑군의 아롱 포로수용소, 싱가포르의 주룡 역류자 수용소를 거쳐 조선으로 돌아온다. 그가 처음 자신의 전쟁 체험을 처음 발표한 것은 1964년 11월호 신동아에 발표한 수기 「버마전선패잔기」를 통해서다.

23 김찬호, 『모멸감』, 문학과지성사, 2014, 64쪽.

이 글은 1993년 발표한 소설 『분노의 강』의 토대가 된다.²⁴ 「버마전선패잔기」와 『분노의 강』은 주인공의 이름이 이명언으로 바뀌고, 등장인물의 내면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수기를 발표했던 이가형은 30년이 지나서 왜 굳이 소설이라는 형식을 취했을까? 이선미는 박완서가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했던 한국전쟁 경험을 뒤늦게 자전소설을 쓴 것이 ‘날 것 그대로’ 이야기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한다. 소설적 장치나 미학 없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구성이 오히려 경험과 현실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개입해 들어가 이야기의 개방성을 만들어낸다. 1990년대의 세계화와 탈냉전 분위기 속에서 작가의 정치적 발언을 소설의 형식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⁵ 이것이 실제 경험담인지, 소설적 창작인지를 질문하면서 생겨나는 개방성이 오히려 작가의 정치적 견해를 상상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이선미의 지적은 이가형이 수기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소설을 통해 이야기하는 바를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미 수기로 발표했던 내용을 소설로 씌으로써 이가형은 자유로운 목소리를 확보한다. 그는 전쟁의 희생양, 혹은 독립 영웅이라는 학병의 위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가형 자신이 소설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목적과 결합되면서 ‘모든 태평양전쟁 피해자’들의 원한이라는 키워드와 연결된다.

나는 첫째로 버마에서 숨진 조선 지원병의 원혼을, 둘째로는 역시 버마에서 숨진 조선인 위안부와 태국 등지에서 숨진 포로감시원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써야 할 것이다. 아니다, 나는 버마에서 죽도록 고생한

24 김윤식은 이가형의 『분노의 강』을 체험기를 바탕으로 한 픽션이라는 점에서 김준엽의 『장정』과 같은 기록형, 이병주의 『관부연락선』 같은 픽션과 다른 범주로 구분하면서, 수기와 소설 사이의 시간 차가 버마 전선 체험의 심리적 압력의 강렬성을 말해준다고 설명한다. 이가형은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발간된 여러 수기와 자료를 참고로 하여 소설적 형상화를 이루었으며, 박순동과 이종실이 자신을 ‘버리고’ 탈주한 데 대한 자기해방적 글쓰기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윤식, 앞의 책, 230-248쪽.

25 이선미,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 기억으로 발언하기-1990년대 박완서 자전소설의 의미 연구」, 『상허학보』 제12호, 상허학회, 2004, 403-432쪽.

모든 조선의 젊은이들의 고통을 통하여 조선 민족의 수난의 역사를 써야 할 것이다. 그것도 아니다, 나는 모든 태평양전쟁 피해자들의 맺힌 원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써야 하지 않는가.

아니다. 나는 전쟁의 부조리, 전쟁의 무의미, 전쟁의 우열추악, 전쟁의 잔인무도함에 대해서 써야 할 것이다. 그 뿐인가. 나는 전쟁이라는—노자가 말하는—〈불상지기〉 곧 〈불길한 무기〉에 상처를 입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연약함과 강인함에 대해서 기록해야만 하지 않는가...²⁶

이가형은 『분노의 강』의 프롤로그에서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참여한 조선인들을 거론한다. 여기에는 전범으로 처벌받았던 포로감시원도 있다. 일본은 동원된 조선인에게 포로감시원을 맡겨서 포로로 잡혀 있던 ‘백인들에게’ 전쟁 책임의 일부가 조선인에게 있다고 각인시키는 효과를 꾀했다. BC급 재판에서 전범이 된 조선인은 148명이며, 이중 129명이 포로감시원, 병사가 2명, 육군중장이 1명(홍사익), 중국에서 통역을 맡았던 군속이 16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가형은 포로감시원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재질문한다. 박순동과 이종실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한 그는 이로 인해 약자의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된다. 박순동이 일본군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자신을 괴롭힌 일본군들처럼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는 의지를 다지는 데 반해, 이명언은 자신과 함께 종군한 일본인 병사들에게 연대감을 느낀다. 물론 이명언 역시 일본군 장교와의 관계가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연이은 폭격으로 마쓰나가, 이마카와와 셋이서 패잔병이 되어 함께 움직이는 과정에서 연대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치하라(조선인)와 타카하시(일본인)의 우정과 박순동들과 자신의 관계를 비추어보기도 한다.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민족은 다르지만, 전선에서 우정을 나누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나 나나 이 〈모멸의 시대〉의 피해자임은 매한가지이다. 우리는 미치광이들이 두는 장기의 줄이나 병에 불과했었다.”²⁷라며 군인을 제국주의 전쟁의 피해자로 인식한다. 전쟁의 부조리나 의미를 고민하는 그의 소

26 이가형, 『분노의 강』, 20-21쪽.

27 이가형, 『분노의 강』, 341쪽.

설은 일본 병사에 대한 동료의식까지 다루며 학병 서사에서 더 나아가 전쟁문학으로 자리한다. 포로감시원,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일본인 동료들은 그동안 학병의 수난사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된 적이 없었다. 모델스토리가 아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가형은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려온다.

『분노의 강』은 인물 설정과 소설 속 사건 등은 이가형의 실제 삶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심지어 이가형을 제외한 인물들은 대체로 실명 그대로 등장한다. 수기와 소설의 가장 큰 차이는 학병 지원 동기에 있다. 이명언은 사회주의 운동가도 아니었고, 친일을 하는 아버지 밑에 저항하지도 못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특히 그는 자신이 학병으로 지원했다는 데 부끄러움을 느낀다. 학병 서사에서 학병 지원은 강제로 동원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반해, 이명언은 자신의 지원 동기를 설명하려 시도한다. 구제고등학교 시절 민족주의 사상 책동자로 취조를 받고 5개월 만에 석방된 경력이 있어서 학병이 아니면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²⁸ 이가형은 왜 학병 지원동기를 소설화했을까? 이는 이명언이 계속 느끼는 부끄러움과 관련된다.

이가형은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교양주의자다. 일본의 구제고등학교와 제국대학을 나온 학병들은 보들레르, 발자크, 플로베르 등 프랑스, 독일 문학을 원서로 읽었다. 교양주의는 당시 구제고등학교를 거쳐 제국대학에 입학한 학병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일본인들도 외국어와 데칸쇼 철학 등을 공부하는 고등학교를 거쳐 자연스레 마르크스주의에 도달하고 반제국주의 사상마저 갖게 되었다. 제국주의의 전쟁에 지원하기는 했지만, 반드시 제국주의 파시즘에 찬동하는 것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다.²⁹ 일본인 학병이 남긴 일기와 구술기록 등을 조사한 오오누키 에미코는 당대 엘리트였던 이들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던 특공에 자원한 것이 제국주의의 프로파간다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라고 말한다. 맑시즘이나 사회주의에 관심이 많았던 구제 고등학교의 엘리트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이 가진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죽는 길을 택한다. 자원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들의 선택에는 외적

28 이가형, 『분노의 강』, 54-55쪽.

29 정종현, 『제국대학의 조센징』, 휴머니스트, 2019, 98-114쪽.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내적 동인도 있다고 분석하였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그들의 비극적 낭만주의가 내적 동인을 형성했다.³⁰ 이들은 일본이 위기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여기서 오는 허무주의를 미의식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³¹ 이명언은 도쿄제대 법대를 가지 않기 위해 불량선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법과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도쿄제대 법학과를 나온 식민지 엘리트란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협력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상 말이지 나는 투철한 사상범도 아니었다. 단지 형편없이 연약한 문학 청년이었고 군대와 형무소가 죽도록 싫었던 것뿐이다.”³² 이 연약한 식민지인의 감각은 ‘위안부’와의 만남도 주목한다.

이명언은 “조선피가 제일 만만하다”며 군인들이 위안소에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하는 뒤에서 이를 잡으며 보들레르의 시 “거지들이 몸에 이를 기르듯/우린 사랑스러운 뉘우침을 기른다.”를 떠올린다. 불문과 학생이었던 이명언에게 보들레르의 시는 몹시 친숙했을 것이다.³³ 위안소와 이를 나란히 배치하는 것은 그가 조선인으로서 느끼는 모멸감 때문이다. 「독자에게」는 이명언이 지옥가도라 불리는 운남 5백 리 야간 행군을 앞두고 친구 윤병철에게 편지를 쓸 때도 일종의 유언으로 등장한다. 여기서의 같은 시의 “나날이 지옥으로 우리는 떨어진다”를 인용한다.

30 오오누키 에미코, 이향철 역, 『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 모멘토, 2004, 408-456쪽.

31 오오누키 에미코, 이향철 역, 『죽으라면 죽으리라』, 우물이있는집, 2007, 50쪽. 오오누키 에미코는 하야시 타다오와 나카오 타케노리 등의 학도병의 일기를 통해 이들이 엘리트 교육을 통해 철학과 문학에 정통했음을 밝힌 바 있다.

32 이가형, 『분노의 강』, 154쪽.

33 식민지 조선에서 보들레르의 시는 널리 번역되고 읽힌 텍스트였다. 1916년 백대진, 김억 등이 보들레르의 이름을 거론하고 소개를 시작하였으며, 1920년대부터 보들레르의 시가 번역되었다. 김억은 보들레르를 프랑스 상징주의, 서구 근대시의 대표로 소개하였으며, 이를 전범으로 삼아 세계문학과의 동시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1890년경 『약의 꽃』이 소개되기 시작하고, 시 일부가 번역되기 시작한다. 타니자키 준이치로가 보들레르의 산문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김준현, 「보들레르의 번역과 수용(1916-1940)」, 『코기토』 제78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7-50쪽; 구인모, 「근대기 한국의 보들레르 시 번역과 그 함의: 김억과 양주동의 설전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제80호, 동악어문학회, 2020, 11-48쪽.

어리석음, 과오, 죄악, 인색이
우리의 정신을 차지하고 우리의 몸을 들볶으니,
우리는 친절한 뉘우침을 기른다,
거지들이 그들의 이를 기르듯.

(…)

줄을 잡고 우리를 조종하는 것은 저 악마!
역겨운 것에서도 우리는 매혹을 찾아내어,
날마다 지옥을 향해 한걸음씩 내려간다,
두려운 줄도 모르고, 악취 풍기는 어둠을 건너.

(…)³⁴

「독자에게」는 악을 묘사하고 포착하면서 동시에 윤리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데 주목한다. 악한 것에 매혹되어 지옥을 향해 가는 인간에 주목하는 이 시를 이 명언이 주로 인용하는 것은 그가 전선에서 느낀 딜레마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악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악한 군인이자 문학도로서의 자기의식은 ‘위안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일본인 병사들은 대체로 몸을 청결하게 가꾸려고 애를 쓴다. 나는 이와 벼룩과 빈대 속에서 살아온 조선인이기 때문인지 내 몸에 유난히 이가 슬이는 것일까. 나는 이미 오욕 속에 젖은 몸이 아닌가. 한데 나는 아까의 고참병의 대화가 어쩐지 석연하지 않았다. 일본 군대에 섹스를 봉사하러 끌려온 조선여자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녀들은 분명 나처럼 끌려왔을 것이다. 포로감시원이 끌려온 것처럼.

버마가 어떤 곳인데 설마 돈을 벌려고 지원하지는 않았겠지. 나는 그동안 억누른 이른바 민족적 울분이 쌓이고 있었다. 나는 조선인 병사, 포로감시원, 위안부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일본 군부에 대한 증오감이 치솟

34 샤를 보들레르, 황현산 역, 「독자에게」, 『악의 꽃』, 민음사, 2016, 7쪽.

고 있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견디기 어려운 모멸의 감정도……³⁵

여기서 이명언은 조선인 병사, 포로감시원,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연결시킨다. 조선인 병사, 포로감시원, ‘위안부’의 연쇄는 모두 일본의 총동원 체제에 의해 동원된 희생양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이가형은 비교적 일본군 ‘위안부’를 세세하게 기록된다. 수기와 소설에서 위안소 일화는 두 번 등장한다. 버마에 도착하자마자 모을메인(Moulmein)의 위안소를 찾은 것이 한 번, 시뽀(Hsipaw)의 위안소 개업 전날 어울려 파티를 한 것이 한 번이다. 상병에게 이끌려간 모을메인의 위안소에서 이명언은 고향이 군산이라는 정자와 만난다. 그러나 이명언은 정자와 섹스하지 못한다. 콘돔이 없어서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시뽀의 위안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명언은 위안소 개업 전날 파티에 초대받아 후쿠모라 소위(문관으로 대우받는 조선인)와 함께 술자리에 참석한다. 조선인 업주와 조선인 ‘위안부’, 조선인 군인이 모인 자리다. 위안소의 여성들 다수가 조선인이기 때문에 조선인 군인은 환영을 받는다. 이번에도 이명언은 조선인 ‘위안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위안부’ 여성과의 섹스는 성사되지 못한다. 술에 취한 장교가 갑자기 찾아와서 소란을 피운 탓에 황급히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오복녀가 나에게 키스하며 애무하고는 “내일 꼭 와야해요”라고 했지만, 다음날 부대가 출발하면서 찾아가지 못한다. 이처럼 이가형은 이명언과 ‘위안부’의 섹스를 불가능하게 만든다.³⁶ 조영일은 이명언의 섹스하지 않음이 일종의 ‘자발적 거세’라고 평가한다. 기혼자였던 이가형이 성경험이 없을 리 만무하며, 이명언이 정자와의 섹스를 거부하는 것은 적극적 부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³⁷ 그렇다면 여기서 이명언이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스스로에 대해 역정을 느낄 만큼, 섹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도 위안소에서 섹스를 하지 않았다고 서술하는 것은 왜일까?³⁸

35 이가형, 『분노의 강』, 70쪽.

36 이 두 번의 경험은 「버마전선패잔기」와 『분노의 강』, 이규동의 인터뷰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이가형이 경험한 일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37 조영일, 「학병서사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36-247쪽.

38 “나는 정자를 꺼안아주지 못한 것을 한없이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역정

나는 내리닫이를 통해 보일 듯 말 듯한 조선여자의 육체가 조선남자의 육체를 안타깝게 갈구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나는 스스로 욕망을 일으켜서라도 정자를 안아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한편 마치 침범해서는 안 되는 천사 앞에서 주눅이 든 것 같기도 했다.³⁹

이명언은 조선인 병사에게 호의적인 ‘위안부’들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위안소를 그냥 나선다. 위안소에서 섹스를 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스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이 해석은 이명언이 자의적으로 내린 판단이다. 그는 군대에서 가장 낮은 취급을 받았던 위안소의 여성들을 ‘천사’로 격상시키지만, 이 역시 자신의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만회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는 이 소설이 1990년대에 쓰여졌다는 점과 더불어 살펴보아야 한다.

4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부상과 ‘말할 수 없음’의 소설화

버마 전선에서 박순동과 이가형이 조선인 ‘위안부’를 마주쳤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일본군은 버마를 점령하자 바로 위안소 설치를 준비하였고,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새로운 점령지였던 탓에 일본, 조선, 중국 등에서 많은 수의 ‘위안부’를 동원했다. 특히 이중 다수는 조선인이었다. 1942년 7월 부산항에서 출발한 여성들의 수는 703명이었으며, 이후에도 버마로의 ‘위안부’ 동원은 계속되었다.⁴⁰ 미국의 전시정보국에서는 버마에서 포로로 잡힌 조선인 ‘위안부’를 심문한 기록이 있으며, 버마에 종전한 일본군인들의 회고록에도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기록이 있다.

랑사단은 남선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본인 5명에 대해 1명 정도의

을 느끼고 있었다.” 이가형, 『분노의 강』, 84쪽.

39 이가형, 『분노의 강』, 82쪽.

40 공준환, 「연합군 자료를 통해 본 버마의 일본군 ‘위안부’ 제도」, 『동북아역사논총』 제66호, 동북아역사재단, 2019, 205-253쪽.

비율로 조선인의 지원병이 들어 있었다. 얼굴로도 말로도 전투동작도 거의 구별을 할 수 없었지만, 부상당해 입원하여 수술을 받을 때 ‘아이고’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다고 군의들은 말하였다.⁴¹

버마 전선의 늑대사단에 동원된 조선인은 군인, ‘위안부’뿐 아니라 군속 노동자들도 많았다. 하지만 공용어가 일본어인 상황에서 조선인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중국의 위안소에 있었던 김순악은 조선인 병사가 위안소를 방문했냐는 질문에, 위안소에서는 모두 일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선인 병사인지, 일본인 병사인지 알 수 없었다고 말한다.⁴² 위안소에서 잠깐 접촉한 것으로는 조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위안부’와의 만남은 조선인 군인에게 더 강력하게 남아 있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이가형이 자신의 경험을 본격적으로 소설화하는 데는 약 30년이 걸렸다. 이가형이 뒤늦게 소설을 쓰게 된 데는 두 번의 계기가 존재한다. 하나는 1979년 후쿠타니 중위가 이가형을 찾아온 것이다. 그는 『작살난 늑대』라는 수기를 통해 버마 전쟁을 기록하였으며 이가형에게 조선인 당번병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한다. 이가형은 여기서 일본군 출신이었던 박정희를 겹쳐놓으며, 아직 전쟁의 기억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소설이 나오기까지는 그 후로도 9년이 지난다. 그 사이 발생한 세 가지 사건이 소설쓰기를 추동한다.⁴³ 그 중 하나가 NHK와의 인터뷰다. 『분노의 강』에서 그는 한국에 유학을 와있던 여성을 통해 NHK와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고 밝힌다. 이 인터뷰

41 辻政信, 『十五對一-激闘ビルマ戦線』, 原書房, 1979, 72쪽; 김도형, 「일제 말기 필리핀 버마 지역 한인 병사의 강제동원과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7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4, 173쪽 재인용.

42 영화 〈보드랍게〉(박문철, 2021)

43 나머지 두 가지는 〈콰이강의 다리〉의 원작 소설에 “고릴라처럼 생긴 잔인한 조선인 감시원”이 등장하는 것, 그리고 후쿠타니 중위의 당번병이었던 신영찬을 만났으나 버마 전선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등으로 제시된다. 특히 신영찬의 기억하지 못함/없음은 망각이 가장 강력한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이가형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가형은 여러 자료와 자신의 기억 등을 모아 소설을 집필한다.

는 1983년 우스키 케이코(臼杵敬子)⁴⁴와 한 것으로 보이며, ‘이규동’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⁴⁵ 1975년 배봉기가 조선인 ‘위안부’였음을 밝힌 이후, 일본 사회는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가와다 후미코가 배봉기와 10년간의 인터뷰를 통해 정리한 『빨간 기와집』을 출판한 것도 1987년이였다. 이가형과 NHK의 인터뷰도 높아진 일본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1981년 윤정옥이 한국일보에 ‘끌려간 사람들’이라는 연재를 통해 오키나와의 일본군 ‘위안부’ 배봉기의 이야기를 보도하고, 1990년 한겨레에 ‘정신대 취재기’를 연재하였다. 이후 1991년 김학순의 공개증언까지 한일 사회 모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이가형이 ‘위안부’와의 만남을 상세하게 기록한 소설을 출판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조응한 것이기도 했다.

우스키와의 인터뷰에서 이규동(이가형)은 “조선이 독립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쁘면서도 일본군에 자원입대한 자신이 그 새로운 질서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착잡한 심정”이었다고 밝힌다.⁴⁶ 이는 식민지 엘리트였던 조선인이 해방과 더불어 느꼈던 솔직한 감각일 것이다. 학병 서사에서 해방은 감격의 순간으로 기록된다. 박순동처럼 조선 침투훈련을 준비 중이던 사람들은 당혹스러웠을 수도 있고, 자신들이 노력한 것이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은 조국의 해방이라는 대의 앞에서 내뱌을 수 없는 것이 된다. 학병

44 저널리스트인 우스키 케이코는 1982년 한국에 어학 유학을 와서 지내던 중 1983년 이규동(이가형)을 인터뷰한다. 그는 한국에 와서 ‘위안부’, 기생관광, 재일조선인 문제 등에 관심을 갖게 되고 1990년 ‘일본전후책임청산협회’를 만든다. 1997년 한국의 ‘위안부’ 생존자들에게 아시아국민기금 수령을 권유한 문제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日, 정신대 할머니에 또 ‘검은 손길」, 『경향신문』, 1997.7.30.

45 이 인터뷰는 조지 힉스가 쓴 『위안부』에 이규동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힉스의 이 책은 당시 출간된 일본, 미국 등의 ‘위안부’ 관련 도서를 섭렵,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뷰의 원전 역시 이 책은 아닐 것이다. 인터뷰에 실린 내용상 도쿄제대 재학 중 지원병으로 늑대부대 소속으로 지원병 출전하였다는 점, 모울메인, 시뵘의 위안소와 ‘위안부’ 일화가 이가형의 『분노의 강』, 『버마전선패잔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규동이 이가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46 조지 힉스, 전경자·성은애 역, 『위안부』, 창작과비평사, 1995, 153쪽.

서사가 말하지 않는 부분이다. 조지 힉스는 당시 군인이던 한국인이나 타이완인의 전시 회고에서 위안소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잘 시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애국주의적 감수성과 연결되어 있어서 인정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고 진단한다.⁴⁷ 학병으로 지원한 동기만큼이나 위안소 경험 역시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의미다. 일본군 ‘위안부’가 전시에 동원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자 범죄로 명명되는 상황에서 조선인 여성을 착취한 조선인 남성은 쉽게 입을 열 수 없다. 이가형은 이러한 ‘말할 수 없음’을 허구의 영역에서 설명한다.

1945년 3월 중순 패잔병이 된 이명언은 싯탕강에서 시뵈 위안소에 있던 은경과 마주친다. 재회한 은경은 명언에게 ‘숫총각’이냐고 묻고는 그의 성기를 주물럭거린다. 발열로 고생하던 이명언은 은경에게 가슴을 빨게 해달라고 청한다. 이명언은 은경의 가슴을 “엄마의 젖가슴인 양 두 손으로 어루만지고 교대로 젖꼭지를 만지고 빨다”.⁴⁸ 위안소를 벗어난 공간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성애적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명언 씨라고요. 전 김은수예요. 은경이라고 불러요.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요.”

은경이는 내 손을 그녀의 젖가슴에서 떼내고 아기 고추를 따먹는 시늉을 한다.

“우리 아기 고추 참 맛있다.”⁴⁹

여성과의 섹스를 두려워하는 아들(이명언)을 어머니(‘위안부’)가 거세하는 이 장면은 상당히 프로이트적이다. 김윤식은 이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소년의 그리움으로 해석하며, 은경을 만난 일 자체를 환각으로 이해한다. 앞의 위안소 경험과 달리 「버마전선패잔기」에도 등장하지 않으며,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⁰ 소설에 등장하는 유일하게 성애적인 관계인 이 장면을 어머니에 대한

47 위의 책, 155쪽.

48 이가형, 『분노의 강』, 254쪽.

49 이가형, 『분노의 강』, 256쪽.

50 김윤식, 앞의 책, 249-258쪽.

그리움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조영일은 환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자 관계와 유년기로의 퇴행이 이명언이 가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하면서, 그의 자발적 거세가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극복하려는 글쓰기를 추동하게 하는 지점이라고 설명한다.⁵¹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이명언의 욕망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 장면은 11장에서 열 때문에 후방으로 보내졌을 때 회상한 어릴 적 기억과 겹쳐진다. 6살 때 어머니를 따라 공중목욕탕에 간 이명언은 “하부를 가리지도 않고 우뚝 서 있던” 여자로부터 “고놈 고치가 붓끝같이 이뻐다, 한번 만져보자.”는 소리를 듣는다. 그 여자가 손을 뻗어 이명언을 만지려 들고 그는 손길을 뿌리치며 어머니를 돌아본다. 그 순간 오줌을 싸며 잠에서 깨어난다.⁵² 이명언이 열에 들떠 끈 이 꿈은 어릴 적의 거세 공포를 형상화한다. 프로이트는 남아가 이성에 대해 느끼는 공포를 어머니의 결핍을 목격한 거세 공포라고 명명한다. 어머니에게 페니스가 없다는 것을 안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거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불안을 느낀다.⁵³ 프로이트에게 거세 공포는 남자아이의 성장 단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상징 질서를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명언이 기억하는 목욕탕 장면에서는 여성이 거세 위협을 가한다. 생식기를 드러내는 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여성은 거세당하는 여성이 아니라 거세하는 여성이다. 그리고 이 경험은 이명언이 여성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지점과도 연결된다. ‘천사’에게 주눅이 든다고 말할 만큼, 이명언은 여성에게서 거세 공포를 느낀다. 이는 ‘이빨 달린 자궁’을 가진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남성을 유혹하여 거세할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비롯한다.⁵⁴ 이때 거세하는 여성은

51 조영일, 앞의 글, 246-247쪽.

52 이가형, 『분노의 강』, 204-205쪽.

53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재혁 역, 『꼬마한스와 도라』, 열린책들, 2004, 11-130쪽. 프로이트는 하얀 말이 자기를 물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가진 꼬마한스를 통해 그 공포증과 성적 욕망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불안 히스테리에 시달리는 한스는 어머니로부터 “또 그런 짓을 하면 A박사님이 와서 고추를 때버릴 거야”라는 위협을 당한다.

54 바바라 크리드, 손희정 역, 『여성괴물』, 여이연, 2008, 202-230쪽. 바바라 크리드는 크리스테바의 비체를 원용하여 대중서사물인 공포영화의 분석에 적용한다. 공포영화 속 여성들이 괴물같은 존재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사회의 가부장제적 속성을 지적하고, 그러한 여성

인간과 비인간, 여성성과 남성성 등의 다양한 경계를 해체하는 괴물성을 드러냄으로써 비체가 된다. 경계와 위치, 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정체성과 체계, 질서를 교란하는 존재로서 여성은 “하부를 가리지 않고 우뚝 서 있”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은경과의 성관계가 거세를 통해 완수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위안소에서 ‘천사 같은’ 여성과는 불가능했던 성관계가 부대 밖 퇴로에서 이루어진다. 프로이트식 거세 공포의 핵심이 ‘나도 엄마처럼 거세당할 수 있다’는 데서 온다면, 이명언은 은경을 통해 거세를 이룸으로써 불안과 공포를 해소한다. 거세 공포를 통해 아버지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세를 통해 아버지의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며,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이명언은 주변 병사들과 달리 위안소에 대해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위안소에서 환영받았지만, 실제로는 위안소 여성들에 대해 성욕을 느끼지 못한다. 도리어 상징적 거세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성적 관계가 가능하다. 이명언은 이 상징적 거세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페니스의 상실과 그로 인한 퇴행은 상징 질서에 진입하여 ‘정상적인’ 남성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는 일종의 ‘이류 엘리트 남성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카다 리에코는 구제고등학교-제국대학 출신의 문학청년들을 분석하면서 이들을 ‘남성 이류 엘리트’라고 명명한다. 구제고등학교의 교양주의는 제국대학 진학 후의 엘리트 노선과 구분되는 아름다운 한때로 낭만화 되며, 구제고등학교의 남성들 간의 관계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절대적인 우정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 여성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⁵⁵ 중일 전쟁 이후 파시즘 시기에는 교양주의적 독서가 부활하고 젊은 구제고등학생들에게 자유나 해방을 가르쳐주었다. 이는 현실의 부자유로부터 기만적으로 작동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제국대학의 조선인이었던 이가형에게는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구제고등학교와 군대 모두 여성은 공동체 밖에 존재한다. 남성들 간의 관계에 중심을 두

괴물을 보지 못하는 비평 담론의 남성 중심성을 비판하는 것이다. 크리드에 따르면, 뽀족한 송곳니, 피 묻은 입술의 클로즈업 샷 등은 이빨 달린 자궁의 시각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55 다카다 리에코, 김경원 역, 『문학가라는 병』, 이마, 2017, 165-194쪽.

고 여성을 배제/혐오하는 것이 남성들 간의 우정이기에 같은 세대 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감정이 주를 이루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숭배한다. ‘위안부’ 여성들과는 섹스할 수 없었던 이명언이 어머니의 이름을 빌려서 성적 교류를 하고 거세당하는 것은 식민지의 엘리트로 성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미성장의 상태에 머무르려는 것이다.

이명언의 유약한 남성성과 교양주의는 식민지인인 탓만은 아니다. 제국의 엘리트적 자기희생 정신이 고독한 자기만족에서 니힐리즘으로 변해간다. 제국고등학교-제국대학 출신의 엘리트 남성들은 기합과 체벌이 훈련인 일본 군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낭만적 자기희생으로 의무를 완성한다. 그는 버마에 가는 길에 수송선에서 죽은 군인 나카무라가 자살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죽었어야 했는데, 그가 먼저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이명언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왜 죽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이다.⁵⁶ 자신이 군인 되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패잔병이 된 이명언은 버마의 민가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 버마인 ‘소녀’를 비롯하여 아름다운 여성과 마주친다. 그는 언제든 그들을 성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지만, 공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를 향해 선주민의 언어로 소리치는 남성에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군인이라면 자신의 남성성을 입증하기 위해 갖고 있던 총으로 그들을 제압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는 것이다. 그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남성 청년의 과업에 실패한다. 학병 출신인 다른 인물들의 수기에서는 이런 방식의 실패가 드러나지 않는다. 식민지 남성성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수용하고 체현하는데 반해, 이명언은 처음부터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분노의 강』에서 이명언과 ‘위안부’ 여성들의 만남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이명언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친근감을 나타내고 그를 위로한다. 섹스를 하

56 “모든 일이 서툴고 어설프고 쓸모가 없었다. 말라리아로 모리모토나 탄노처럼 죽지도 않았다. 그저 끌려다니는 것 뿐이었다. 버림을 받거나 스스로 꺼지지 못하는 이상은... 아마도 버마의 전 병사 중에서 나아말로 가장 못한 병사였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아니다 나보다 못한 병사 나카무라 이등병은 일찌감치 동지나혜의 물귀신이 되지 않았던가!” 이가형, 『분노의 강』, 191쪽.

지 않았으며 군표를 거절하거나⁵⁷ 내일 꼭 찾아오라고 당부하는 등 이명언을 향해 애정을 드러낸다. 수기와 이규동 인터뷰 등에서는 그는 섹스는 하지 않았지만, 통상 요금인 20원보다 많은 30원의 요금을 지불했다고 기술한다.⁵⁸ 즉 실제로는 요금을 지불하였지만, 소설에서는 정자가 군표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조선인 학병과 조선인 ‘위안부’ 사이의 감정적 교류와 연대감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이는 ‘위안부’만은 모자란 군인인 이명언을 위로한다고 생각하고 싶은 이가형의 욕망을 드러낸다.

5 나가며: 기억과 망각 사이의 ‘위안부’들

일본군이 된 조선인 청년과 조선인 ‘위안부’ 사이의 애절한 사랑은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MBC, 1991~1992)를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이가형의 자기서사에서도 조선인 여성들은 조선인 학병을 반가워하며 환대한다. 버마 위안소에 있던 문옥주는 조선인 병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병사들 중에는 조선인도 있어서 게 중에는 대구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 조선인이 많이 있는 부대는 아주 강하다고들 했다. 그 사람들은 동그라미 안에 붉은 히라가나로 ‘사’자가 들어가 있는 견장을 붙이고 있었다. 우리들은 조선인 병사들과 무사히 고향에 돌아가자며 서로 격려하곤 했다.⁵⁹

이가형의 소설에서 등장한 ‘위안부’들의 위로와 격려는 이러한 맥락에서 작동한다. 사랑이나 환대가 아닌 위안소 경험은 학병의 자기서사로 등장하지 않는다. 위안소는 일본인, 조선인 등 민족과 장교, 병사, 군속 등 지위를 막론하고 일본군에 속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일본군의 군인 되기 과정에서 위안소

57 “정자의 얼굴은 마치 소박당한 여자처럼 초라해 보인다” 이가형, 『분노의 강』, 83쪽.

58 조지 힉스, 앞의 책, 154쪽.

59 모리카와 마치코, 김정성 역, 『버마 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2005, 80쪽.

는 필수 코스로 여겨진다. 군인은 섹슈얼리티 실천을 통해 남성성의 모델이 된다. 군사주의적 남성성은 폭력의 성애화와 폭력적인 섹슈얼리티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돌격1호’라는 군 보급용 콘돔의 이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섹스는 권리이자 ‘진짜 사나이’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⁶⁰ 그런 점에서 박순동과 이가형의 자기 서사에 위안소 경험이나 ‘위안부’와의 섹스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학병들의 자기 서사에서 ‘위안부’와의 만남이 작은 삽화 정도로 처리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온 성판매 여성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안부’나 자신이나 다름 없는 처지라고 생각하던 이명언도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한 매춘부’라고 생각한다.⁶¹ 일본군 및 조선인들 사이에서 ‘위안부’가 가진 낮은 사회적 지위에 기인한다. 시뵐의 위안소에서 이명언이 만난 오복녀는 진주여고를 다니다 그만둔 것으로 나온다. 이에 이명언은 여고를 다니다 ‘위안부’로 온 것은 분명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위안부’는 가난한 하층민 여성들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전선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규동(이가형)과 우스키의 인터뷰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싱가포르 수용소에서는 지역과 혈연에 따른 구분이 확실하게 지켜졌다고 진술한다. 같은 성씨 중 학병의 수가 많을수록, ‘위안부’의 수가 적을수록 서열이 높은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진해 김씨는 ‘위안부’가 20명이어서 그 중 가장 낮은 서열에 위치했다.⁶² 학병-군속-‘위안부’ 순으로 위계가 만들어졌다. 두 번째로는 위안소 이용은 일상적인 경험이고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가형이 소설을 발표한 1990년대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위안소 이용 경험을 말하기는 쉽

60 안연선, 『성노예와 병사만들기』, 삼인, 2003, 160-193쪽.

61 “나는 순간적으로 혐오와 측은함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내 자신은 뭐였던가? 나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일본군에게 지원할 조선의 청년이 아니었던가. 나도 낫을 판 썩은 몸이 아니었던가. 다만 다른 점은 돈을 벌기 위한 고용병이 아니었고 돈을 벌기 위한 매춘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가난하고 불쌍한 민족은 제물—바로 우리는 이 제물이었던 것이다.” 이가형, 『버마전선패잔기』, 267쪽.

62 조지 힉스, 앞의 책, 155쪽.

지 않았다. 세 번째로는 ‘위안부’의 언어를 읽어낼 눈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도병들이 일본식 이름으로 불리고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가지고 있던 데 반해, 조선인 ‘위안부’들은 계급과 학력 등의 문제로 일본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조선인 ‘위안부’의 ‘조선인다움’은 훨씬 더 가시화될 수밖에 없었고,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이중 억압은 강화된다. 즉 이들은 자신을 설명할 언어를 갖지 못했고, 위안소에서 살아남기 위해 위안소의 언어를 배워야 했다.

1923년 대구에서 태어난 문옥주는 가난한 가정 형편상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위안부’가 된다. 그는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가 일찍 죽은 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군속 노동자가 되려다 버마에 도착한다. 만달레이 위안소의 문옥주들은 타테 부대 소속 위안소를 개업했으며, 대구 출신 여성들이었던 탓에 대구관이라 불렸다. “병사들 사이에서 나는 영리하고, 밝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위안부로 유명해졌다.”⁶³ 위안소라는 현실과 빨리 타협한 문옥주는 인기 있는 ‘위안부’가 된다. 젊은 일본인 병사와 연애도 한다.

위안소의 언어를 익혀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안부’들의 말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었다. ‘위안부’들의 경험은 학병 서사처럼 널리 읽히고 해석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증언자료집이 출간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며, ‘위안부’ 생존자임을 밝히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다. 조선에 돌아온 ‘위안부’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말하지 않은 채 살아갔다. 영웅 되기 과정을 통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획득한 박순동은 ‘위안부’나 군속 노동자 등의 그악스러움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상징적 거세를 통해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부터 탈각된 이명언은 이들과 학병인 자신의 처지가 마찬가지로 생각하지만 자기서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호할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위안부’는 이들의 자기서사에서 타자화되어 언어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해방 이후 돌아왔으나 돌아오지 못한 채 학병들의 기억에서 ‘지옥의 천사’ 혹은 ‘박꽃’으로 존재하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이가형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부터 탈락한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위안부’를 동원한다. 이처럼 학병 서사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대상화되고 파편화되어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면을

63 모리카와 마치코, 앞의 책, 81쪽.

통해서만 ‘위안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누가 왜 ‘위안부’를 기록하고, 기록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는 것, 일본군 ‘위안부’ 서사의 아카이빙은 여기서 시작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박순동, 「모멸의 시대」, 『신동아』 제13호, 1965.9, 350-385쪽.
이가형, 『분노의 강』, 경운출판사, 1993.
_____, 「버마전선패잔기」, 『신동아』 제3호, 1964.11, 272-301쪽.
1.20 동지회, 『1.20 학병사기』 1권, 삼진출판사, 1987
모리카와 마치코, 김정성 역, 『버마 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시민모임, 2005.

단행본

-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3-64쪽.
김찬호, 『모멸감』, 문학과지성사, 2014, 64쪽.
안연선, 『성노예와 병사만들기』, 삼인, 2003, 160-193쪽.
정종현, 『제국대학의 조센징』, 휴머니스트, 2019, 98-114쪽.
황종연, 「조선 청년 엘리트의 황국신민 아이덴티티」, 『한일 역사인식 논쟁의 메타히스토리: ‘한일, 연대21’의 시도』, 뿌리와이파리, 2008, 258-268쪽.

- 다카다 리에코, 김정원 역, 『문학가라는 병』, 이마, 2017, 165-194쪽.
바바라 크리드, 손희정 역, 『여성괴물』, 여이연, 2008, 202-230쪽.
샤를 보들레르, 황현산 역, 「독자에게」, 『악의 꽃』, 민음사, 2016, 7쪽.
아라라기 신조, 서재길 역, 「전시 성폭력 피해를 듣는다는 것」,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 어문학사, 2020, 355-358쪽.
오오누키 에미코, 이향철 역, 『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 모멘토, 2004, 408-

456쪽.

- _____, 이향철 역, 『죽으라면 죽으리라』, 우물이있는집, 2007, 50쪽.
우치다 준, 한승동 역, 『제국의 브로커들』, 길, 2020, 509쪽.
조지 힉스, 전경자·성은애 역, 『위안부』, 창작과비평사, 1995, 153쪽.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재혁 역, 『꼬마한스와 도라』, 열린책들, 2004, 11-130쪽.
후루하시 아야, 『비판적으로 읽는 일본 군인 회고록 속 ‘위안부』, 동북아역사재단, 2021, 10-14쪽.

논문

- 공준환, 「연합군 자료를 통해 본 버마의 일본군 ‘위안부’ 제도」, 『동북아역사논총』 제66호, 동북역사재단, 2019, 205-253쪽.
구인모, 「근대기 한국의 보들레르 시 변 중역과 그 함의: 김억과 양주동의 설전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제80호, 동악어문학회, 2020, 11-48쪽.
김도형, 「일제 말기 필리핀 버마 지역 한인 병사의 강제동원과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7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4, 153-196쪽.
김준현, 「보들레르의 번역과 수용(1916~1940)」, 『코기토』 제78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7-50쪽.
박혜숙,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문학연구』 제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8-10쪽.
이선미,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 기억으로 발언하기-1990년대 박완서 자전소설의 의미 연구」, 『상허학보』 제12호, 상허학회, 2004, 403-432쪽.
장수희, 「일본군 ‘위안부’ 서사자료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정병준, 「박순동의 항일투쟁과 미 전략첩보국(OSS)의 한반도침투작전」,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6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03, 1-53쪽.
조영일, 「학병서사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최영옥, 「학병 서사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최지현, 「학병의 기억과 국가」, 『한국문학연구』 제32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

Abstracts

The Self-Narratives of Burmese Student Soldiers and the Politics of Memory
—The Intersection of Student Soldiers' Narratives and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rchive

Heo Yoon

In the self-narratives of student soldiers, there is a politics of memory that resembles the oral testimony of women who wer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e agency of self-narratives can be found in what is and what is not described. In particular, encounters with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re not an important element of student soldiers' narratives.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race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 the memories of those who returned. This paper attempts to expand the narrative surrounding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by rereading texts that have hitherto not been included in the narrativ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hile discussing the representation of this system.

Park Soon-dong's memoir, *The Age of Despair*, is a prototypical story of an anti-Japanese hero who escaped from the Japanese army and received OSS training. He said that Korea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as commonly observed on the front; however, he only observed it from a distance while objectifying it as a flower. Lee Ga-hyung, an abandoned Korean who was left alone because his body had been weakened by malaria, narrates the memory of the Burmese Front in his memoir *The Defeat of the Burmese Front* and novel *River of Fury*. He details his encounters with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 his memoir and novels. He regard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prisoner guards, and student soldiers as scapegoats for the war. In particular, he forgoes becoming a hegemonic soldier by not having sex with the women held in sexual slavery. This is linked to his refusal to grow up by willingly accepting symbolic castration as a member of the colonial elite. Although Park Soon-dong and Lee Ga-hyung employ different methods, they both objectify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is is because they failed to understand the performativity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did not understand their language. This remains an important problem for archiving the narrativ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Key words: the self-narratives of student soldier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Park Soon-dong, Lee Ga-hyung, agency

본 논문은 2022년 11월 24일에 접수되어
202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